



김새려 UNFPA 한국 사무소장 직무대행(앞 줄 왼쪽부터), 김용학 연세대학교 총장, 나탈리아 카넴(Natalia Kanem) UNFPA 총재, 강정식 외교부 다자외교조정관, 이강호 보건복지부 인구아동정책관, 아서 에르켄(Arthur Erken) UNFPA 커뮤니케이션 및 전략파트너십 국장, 프로데 솔베르그(Frode Solberg) 주한 노르웨이 대사. /유엔인구기금

## 유엔인구기금, 연세대에 한국사무소 개소

보건·여성인권 등 상호 협력키로

인구문제의 사회·경제·인권 측면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개발도상국 인구정책을 지원하는 유엔 산하 유엔인구기금(UNFPA)이 서울 연세대에 한국사무소를 열었다.

유엔인구기금은 지난 13일 연세대 신촌캠퍼스에 한국사무소를 개소하고, 성생식보건, 인구 고령화, 인도적 지원 등 세계 인구와 개발 문제에 대해 한국과 보다 긴밀한 협력을 촉진해 나갈 예정이라고 14일 밝혔다.

유엔인구기금과 한국 간 협력은 1974년부터 시작됐다. 당시 유엔인구기금은 인구정책, 인구계획, 가족계획, 인구조사와 지속가능한 발전 등 여러 영역에 걸쳐 한국 정부를 지원한 바 있다.

나탈리아 카넴 유엔인구기금 총재는 개소식에서 “그동안 성생식보건에 대한 인식과 권리 향상을 위해 노력해 온 유엔인구기금의 창설 50주년을 맞이하는 특별한 해에 한국사무소를 개소하게 돼 매우 뜻깊다”며 “이번 사무소 개소를 통해 오랜 기간 유지해 온 한국과의 특별한 협력관계를 보다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유엔인구기금 한국사무소는 보건 및 여성인권, 지속 가능발전 분야에서 연세대와 상호 협력할 예정이다. 나아가 정부나 시민사회단체, 언론이나 기타 이해관계자와의 소통 창구 역할을 하게 된다.

김용학 연세대 총장은 개소식에서 “유엔인구기금 한국사무소가 연세대학교 교정에 자리하게 되어 진심으로 기쁘다”며 “연세대는 유엔인구기금의 가장 든든한 조력자가 될 것이며, 긴밀한 협력을 지속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축사를 맡은 이강호 보건복지부 인구아동정책관은 “극적인 출산 정책 전환을 경험한 한국에서 유엔인구기금은 저출산 극복 방안을 연구하고, 대안을 검토하는 매개 역할을 할 것으로 믿는다”며 “한국 정부는 인구정책 관련 다양한 협력 방안을 UNFPA와 함께 모색할 것이다”라고 전했다.

축사를 맡은 이강호 보건복지부 인구아동정책관은 “극적인 출산 정책 전환을 경험한 한국에서 유엔인구기금은 저출산 극복 방안을 연구하고, 대안을 검토하는 매개 역할을 할 것으로 믿는다”며 “한국 정부는 인구정책 관련 다양한 협력 방안을 UNFPA와 함께 모색할 것이다”라고 전했다.

## 정경두 장관, UAE서 韓 방산기업 알린다

‘IDEX2019’ 참석해 홍보·지원

정경두 국방부장관이 아랍에미리트(UAE)에서 열리는 국제방산전람회 ‘IDEX2019’에 참석해, 우리 방산업체 홍보 지원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는 14일 “정 장관이 모하메드 아흐메드 알 보와르디(Mohammad Ahmed Al Bowardi) UAE 국방특임장관의 공식초청으로 이날부터 19일까지 6일간 UAE를 공식 방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IDEX는 UAE가 격년제로 주최하는 중동 및 아프리카 지역 최대의 국제방산전 시회로, 전 세계 고위급 국방관계자와 70여 개국 1500여개 방산업체가 참가한다. 우리 방산기업도 30개 업체가 참여한다.

정 장관은 이번 방문에서 UAE 국방특임장관을 비롯한 IDEX에 참가한 오만,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지난해 12월 5일 국방부를 방문한 모하메드 아흐메드 알 보와르디 UAE 국방특임장관과 함께 국방부 청사로 들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이집트, 그리스 등 국방장관과도 양자회담을 개최할 예정이다. 정 장관은 양자회담 등을 통해 국방 및 방산협력 발전 방안을 논의하고 우리 방산업체 홍보도 적극 지원할 것으로 보여진다.

## 서울대 신임이사장에 전수안 전 대법관

서울대학교 신임 이사장에 전수안 전 대법관(67·사진)이 선출됐다.

서울대는 14일 열린 2019년 1차 이사회에서 재직이사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 이사 과반수 찬성으로 전수안 전 대법관을 신임 이사장으로 선출했다고 밝혔다.

전 신임 이사장은 1987년 판사 임용 이후 서울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 광주지방법원장 등을 역임하고 현직 사상 두 번째 여성대법관으로 재직하다 2012년 퇴임



전 신임 이사장 임기는 2020년 1월까지다. /한용수 기자

했다. 현재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이사장 등을 맡고 있다.

서울대법인이 사장임기는 별도 규정이 없고 이사 재임 동안 이사장을 맡을 수 있어,

# ‘캠퍼스 CEO’ 적극 육성 나선 고려대 학생창업 ‘착착’... 결실 ‘풍성’

빚독 ‘스마트 식기렌탈 솔루션’  
중식당 진출... 연 매출 43억 목표

창업공간 제공·투자자 연결 등  
단계별 창업교육으로 성과이뤘

고려대에서 심리학을 전공하던 이문주 씨는 2014년 모바일 푸드 전문 미디어 쿠키이란 회사를 차렸다. 음식 콘텐츠 관련 창업을 꿈꿨던 이 씨는 초기엔 사용자들에게 특정 장소를 추천하는 서비스를 구상했으나, 낮은 진입장벽을 확인하고 BM설계와 사업의 방향을 다른 쪽으로 다루는 피버팅(Pivoting)을 진행, 푸드 미디어 콘텐츠로 창업 방향을 전환했다.

캠퍼스 CEO 멘토링 데이에서 만난 엔젤투자자로부터 투자를 받아 시작된 사업은 2년이 지난 2016년 매출액 10억 6800만원, 고용인원 74명 규모로 커졌다. 국내 투자자는 물론 미국 실리콘밸리 펀드를 포함해 60억원의 투자 유치 받은 걸 기반으로, 홍콩, 일본, 중국 등 아시아 3개 채널을 추가 론칭했고, 전체 푸드 채널 구독자 수 2360만명을 돌파했다. 아시아 푸드컴퍼니 미디어로 급부상하는데 불과 2년여가 걸렸다.

이 씨의 성공은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대학의 창업지원이 있어 가능했다. 이 씨는 ‘캠퍼스 CEO 실전’이란 창업교과목을 들으면서 창업 아이템을 다듬고 방향을 정할 수 있었다. 특히 창업교과목 수료생을 대상으로 대학이 학기말 진행하는 창업경진대회에서 우수아이템으로 선정 집중 지원을 받은 덕분이다. 고려대는 창업경진대회를 통해 매년 80여개 팀을 발굴해 지원한다.

이처럼 비약적인 성장이 가능한 이유는 초기에 투자 유치에 성공한 때문이기도 하다. 고려대는 투자자와 업계 관계자를 초청해 쉐어데이라는 프로그램으로 투자자와 창업자를 연결해 준다. 경영대 스타트업 스테이션에서 입주해 6개월 간 스타트업 육성 프로그램을 집중 지원받은 팀이 대상이다. 쉐어데이는 반기별 1



고려대 캠퍼스 곳곳에 설치된 학생전용 창업공간인 파일 /고려대학교

회 정례화해 진행되며 연간 약 400여명이 이상이 참석한다.

협업을 통한 창업을 위해 각기 다른 분야 전문성을 가진 구성원이 협업할 수 있는 무박 2일의 고려대 해커톤인 ‘GO!KATHON’(고카톤)도 진행된다. 네이버D2,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웹 서비스, D.캠프 등 소프트웨어 전문기업이나 창업관계기관과 협업해 정해진 시간 내 아이디어를 기획해 실제 구현해보는 행사로 우수팀에 부상과 특권을 제공한다. 고카톤도 지난 2016년부터 매년 1회 진행되면서 대회 200명 이상이 참여하는 등 활기를 띠고 있다.

2018년도 국가연구개발 창업 분야에서 우수성과를 인정받은 사범대학 박노준 학생의 창업기업 ‘(주)빚독’을 비롯해, AI(인공지능)기반으로 한 청소년 진로 상담 자동화 서비스를 선보인 ‘(주)잡쇼퍼’도 고려대 학생창업의 성공 사례다. ‘스마트 식기렌탈 솔루션’을 개발한 빚독은 식당에서 발생하는 식기세척을 IT기반으로 해결하는 식기렌탈 서비스다. 빚독 서비스는 지난해 4월 론칭해 B2B, B2C 타겟으로 영업과 계약을 진행 중이다. 서울 시내 3개 지역 중식당에 진출했고, 1년 이내 매출액 43억6100만원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렇듯 학생창업 성과가 나오는 이유

는 교내 창업기관들이 학생들의 아이디어 창출과 창업 전 과정을 단계별로 지원하고 독창적인 창업 공간을 마련해 제공한 덕분이다. 고려대는 2008년 국내 최초로 창업 전주기 정규 교과목인 ‘캠퍼스 CEO 과목’을 개설하고 ‘앙트프러너십 아카데미’, ‘창업실무교육’ 등 창업 교육을 수시로 진행한다.

고려대 관계자는 “고려대 교육 목표는 도전이 가득한 세계, 예측불가능한 미래를 자신의 것으로 만들 수 있는 ‘개척하는 지성’을 양성하는 데 있다”며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끊임없이 도전하는 학생을 길러내기 위한 노력은 창업 분야에서 도 그 결과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고 전했다.

고려대의 창업지원 노력은 여러 정부 기관으로부터도 인정받고 있다. 지난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발표한 2018년도 국가연구개발 창업 분야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됐고, 2018 산학협력 엑스포에서는 ‘창업교육 우수대학’으로 선정돼 부총리겸 교육부장관 표창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관 공공기술기반 창업탐색 지원사업, 미래창조과학부 주관 과학기술기반 창업중심대학 시범사업에 각각 선정되는 등 정부 주요 창업 관련 사업에서도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한용수 기자 hys@metroseoul.co.kr

## ‘軍서 담배 배운다’ 옛말... 장병 흡연율 ‘뚝’

지난해 흡연율 39% ‘역대 최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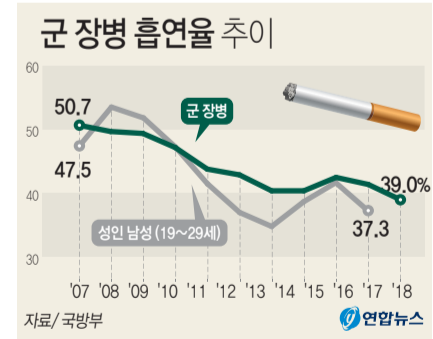
국방부는 14일 지난해 장병 흡연율이 처음으로 30%대에 진입했다고 밝혔다.

국방부에 따르면 2018년 장병 흡연율은 39.0%로, 이는 역대 최저 수치로, 2017년(41.4%) 대비 2.4%가 감소했고 10년 전 49.7%와는 10.7%의 큰 차이를 보였다.

이번 장병 흡연율 조사는 한국갤럽조사연구소 주관으로 지난해 11월부터 12월까지 장병 4067명(병3012명, 간부1055명)을 방문 조사한 것으로, 국방부는 장병 흡연율 감소를 위해 매년 흡연율을 조사하고 있다.

이같은 성과가 나온 배경에 대해 국방부는 2009년 면세담배 폐지 이후 ▲부대 담배광고 금지 ▲금연클리닉 운영 ▲금연집중부대 선정 등 보건복지부, 한국건강관리협회 등과 함께 다양한 금연사업을 추진해, 장병들이 적극 참여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특히 지난해 장병 흡연율 분석 결과 입



대 후 흡연을 시작하는 병사는 전체 흡연자의 6.6%에 불과했다. 또 병의 45.1%가 입대 후 흡연을 시도해 그중 20.9%가 금연에 성공하는 등 ‘군대와 담배를 끊는 것’으로 드러났다.

군 장병들이 생각하는 부대내 효과적인 금연유도방안은 금연자에 대한 포상제도 확대가 66.6%로 압도적으로 높았다.

국방부는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장병들의 금연과 부대 내 금연문화를 정착하기 위해 다양한 금연사업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금연 우수부대와 개인에 대한 포상 제도를 확대 시행할 계획이다.

/문형철 기자

## 대학가 소식

성신여대 기악과

‘지역 주민 위한 음악회’

19일 북서울꿈의숲아트센터

성신여자대학교는 오는 19일 오후 7시 30분 북서울꿈의숲아트센터 콘서트홀에서 ‘지역 주민을 위한 음악회’를 개최한다고 14일 밝혔다. 음악회는 줄리아드음대, 빈 국립음대 등을 졸업하고 전문 연주자로 활동 중인 성신여대 음대 기악과 교수와 재학생이 호흡을 맞추는 자리로, 사제 간의 앙상블을 지역 주민과 함께 나누고자 기획됐다.

성신여대 기악과 오윤주 학과장은 “학생들이 지도 교수들과 음악 작업을 하며 졸업 후 전문 연주자로 성장하는 데 필요한 실전 역량을 키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재학생들이 직접 지역 사회와 소통하고 음악으로 재능을 기부하고 봉사하는 자리를 만들고자 이번 프로그램을 준비했다”고 말했다.

이번 연주회는 성북구, 강북구 주민이면 누구나 무료로 신청해 관람할 수 있다.

/한용수 기자